



K-리그 8일 킥오프

-전문가 전망



3일 서울 흥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K-리그 공식 기자회견에서 각 팀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령탑 바뀐 전남 도약 기대”

녹색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프로축구 2008 삼성 하우젠 K-리그가 8일 막을 올리고 9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FA컵 우승팀 전남 드래곤즈는 8일 지난 시즌 챔피언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광주 상무는 9일 성남을 홈으로 불러들여 탈락지를 위한 도전에 나선다. 올 시즌 단일리그와 6강 플레이오프 제도 등 기본 틀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지만 사령탑에 변화도 많았고, 조재진(전북)이 J-리그에서 복귀하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풍성하다.

“수원·성남·서울 3강...광주 탈락찌 관심”

축구 전문가들에게 올해 리그 판도와 주목해야 할 선수 등을 들어봤다. 김대길 KBS-N 해설위원=수원과 서울, 울산, 성남, 전북 등을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팀으로 꼽을 수 있다. 수원은 김남일(빗셀고베)이 빠졌지만 조원희와 신인 박현범의 활약이 기대된다. 서울은 골잡이 데안을 영입해 공격 라인이 막강해졌다. 성남은 이적생 두두의 활약이 기대된다. 울산은 공격진이 두텁다. 가장 많이 탈락진 모습을 보여줄 팀은

조재진, 최태욱 등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한 전북. AFC 챔피언스리그를 치러야 하는 포항은 고전이 예상된다. 신·구 감독 간 지략 대결이 불 만할 것이다. 서형욱 MBC 해설위원=수원과 성남, 서울을 3강으로 예상했지만 눈에 띈 만큼의 전력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위권 팀과 중위권 팀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중위권의 6강 진입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령탑에 변화가 많았다. 감독 간 새로운 대결 구도가 더욱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김승현 SBS 해설위원=강팀으로 분류됐던 팀 중에서도 6강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팀이 있을 수 있다. 강팀과 약팀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북이 다크호스가 될 것 같다. 전력 보강이 대거 이뤄졌고, 김형범과 제갈로, 정경호 등 멤버들의 상태도 좋다. 선수 중에서는 조재진이 기대된다.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 간 특전 대결, 안정환과 고종수 같은 스타들의 부활도 지켜볼 만하다. 이용수 세종대 교수=수원, 성남, 서울이 3강을 형성하고 포항을 중심으로 전북, 전남, 울산 등이 중위권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승권에는 성남이 근접했다고 본다. 김두현이 잉글랜드에 진출했지만 두두가 들어왔다. 서울은 김은중과 정조국, 박주영이 회복한다면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다. 조재진을 영입한 전북도 만만찮은 전력을 갖췄다. 사령탑이 바뀐 전남과 부산, 경남의 색깔도 달라질 것이다. 하태균(수원)과 박주영(서울)의 활약을 기대해 볼만하다.

K-리그 새 챔피언 트로피...24K 도금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 트로피가 새롭게 제작됐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대문구 흥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개막 기자회견에서 1년여 공을 들여 제작한 새 챔피언 트로피를 공개했다. 트로피는 우승팀이 1년 간 책임과 권리를

를 갖고 보관하며 하단에는 우승팀 이름이 새겨진다. 새 트로피 디자인은 '선수들의 땀방울'과 '팬들의 열정'을 상징하는 두 개의 원을 기반으로 슈팅 동작, 별을 형상화한 리그 엠블렘을 중앙에 놓고 계기도가 그려진 축구공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K-리그의 미래를 담았다. 재질은 24K 도금에 높이 50cm, 무게 7kg이다.



“완벽한 준비·깔끔한 운영 꼭 다시 참가하고 싶어요”

■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참가자들 흠뻑에 칭찬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전국의 마라톤러들에게 겨울 훈련성과 점검, 한해의 마라톤 스케줄 수립, 3·1정신을 되새기는 의미깊은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마라톤러들을 배려한 완벽한 준비와 깔끔한 대회운영이 돋보여 ‘다시 찾고 싶은 대회’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대와 나주 남평에 이르는 영산강 주변에서 펼쳐진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화창한 봄날씨 속에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광주일보 홈페이지 3·1 마라톤 게시판에 칭찬과 감사의 글을 잇따라 올려 그날의 ‘여운’을 이어갔다.

글을 올린 이들은 대회 당일인 지난 1일 낮 최고기온이 섭씨 11.5도까지 올라 마라톤에 최적의 날씨였고 교통통제, 음수대, 레이스 케트를 등 대회 준비와 운영도 완벽에 가까웠다고 칭찬했다. 김중갑 씨는 “지금까지 다녀왔던 대회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대회였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날씨까지 화창해서 달림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천안에서 참가했던 최선배 씨는 “플래카드, 스포츠 마사지, 열풍기, 홍보물 등 준비가 잘되어 만족스럽게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며 “열광적인 응원과 간식 공급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대회로, 내년 44회에는 클럽 단체로 참가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선재환 씨는 “주목하다 푸짐한 간식과 음료수를 마련해 둔 철저한 준비가 돋보였고, 폴코스주자들을 배려한 국수와 두부김치, 돼지고기 등은 전국 어느 대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최고의 서비스였다”고 감탄했다. “나주달림이”는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줘 정말 즐거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나 일부는 다음 대회 때 시내권 코스 중간의 차장정체를 해소하고,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진심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다. 윤여준 MBC마라톤전문해설위원은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는 준비와 운영이 해를 거듭할수록 매끄럽고 깔끔해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내년 대회에는 더 많은 단체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도청 정은희 동메달

펜싱월드컵 여자 사브르 개인 남자 정진선·원우영 3위

한국 여자 펜싱의 기대주 정은희(21·전남도청·사진)가 펜싱월드컵대회 사브르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은희는 지난 2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레가네스에서 열린 월드컵대회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3위에 올랐다. 나주 출신으로 나주고 3학년때부터 국가대표에 발탁된 정은희는 86회 전국체전 사브르 개인1위와 지난해 전국체전 사브르 단체1위를 차지해 고향의 명예를 빛내기도 했으며 지난 2006년 전남도청에 등지를 틀었



다. 정은희는 지난해 8월 중국 난퉁에서 벌어진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적이 있지만 국제대회 개인종목에서 입상하기는 처음이다. 남자 대표팀의 정진선(화성시청)도 같은 날 스위스 베른에서 펼쳐진 월드컵대회 에페에서 동메달을 땀 원우영(서울메트로) 역시 불가리아 플로브디프에서 열린 그랑프리대회 사브르에서 3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베컴 “100번째 A매치 기대” 아시아 투어 중 상하이 도착



지난 1일 국내 축구 팬 앞에서 전매특허인 ‘명품 킥’으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낸 잉글랜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33.LA 갤럭시·사진)이 100번째 A매치를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코리아투어를 마친 베컴은 다음날 저녁 아시아투어 두 번째 행선지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100회 A매치에 한 경기를 남겨둔 느낌”을 묻자 “지금 내게 할 수 있는 건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 가능한 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뿐이다. 기다리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샌주리클럽(A매치 100회 이상 출전) 가입을 눈앞에 뒀던 베컴은 지난해 잉글랜드와 스위스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잉글랜드는 오는 26일 파리 생제르맹에서 프랑스와 친선경기를 벌이기로 다음 A매치 일정을 잡아놓았다.

작은만남 큰 기쁨...광주일보 친절하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various local businesses including legal services, education, and retail.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안내', '맛가', '행복이용원', '형제조경자재판매', '세기급자동차공공사', '고향사람들', '형제조경자재마트', '미도(일식)', '동아리온가스', '고구려보쌈,감자탕', '웅진북클럽광주서부사업국', '정자나무장어셀프', '동서남북공인중개사', '남양인테리어', '고급도', '(주)비에스엘시스템', '베스트정보', '원조양동통닭', '귀뚜라미보일러광산점', '6.25참전전우회', '핑크다방', '전통옛날국밥', '놀부집항아리갈비(황금점)', '무한도전카클리닉', '매운갈비뚝뚝은지삼겹살', '동양철학원', '바다로합어관'.